

창작자 재능 돋보이는 한국경쟁 부문 영화 감상해보자

영화창작자의 재능이 돋보이는 한국경쟁 부문에는 올해 121편이 출품되었고 그 중 10편의 작품이 본선작으로 선정되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주력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한국경쟁은 상영시간 40분 이상의 중편 혹은 장편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메인 경쟁 부문이다.

이들 작품은 영화제 기간 동안 대상(백암상·백제예술대학교 후원), CGV 아트하우스 배급지원상과 창작지원상을 두고 경합한다.

한국경쟁 작품은 이동우(노후 대책 없다), 고봉수(델타 보이즈), 윤재호(마담 B), 고희영(물술), 이현주(연애담), 조성은(우리 연애의 이력), 김진태(운동화), 김종관(최악의 여자), 류훈(커피폴, 최정만(프레스)이다.

이들 작품 중 커피폴과 델타 보이즈는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유머로 풀어낸다.



스스로가 비보같다는 걸 가까이 인정하는 남자 4명이 중창대회 참가를 준비하는 과정을 다룬 고봉수 감독 <델타 보이즈>

▲커피폴-류훈, 2016

알차라 뒤흔다 소동극으로 전개되는 내러티브는 예로 연극을 무대에 올리며 연명하던 삼류극단의 연출자와 연기자 스태프들이 어떤 사정으로 제대로 정극을 올리기로 결심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룬다.

대학시절 <햄릿>을 탁월하게 해석했다는 평판을 들었던 연극 연출자 민기는 나이가 들어 밥벌이에 매진하면서 잃어버렸던 예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지만 그

앞에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타락한 현실적 상황이 있을 뿐이다.

희극적 상황 속에서 오늘날 속화된 예술이라는 것의 의미를 던지는 질문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

-김영진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델타 보이즈-고봉수, 2016

처음부터 차례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딘가 모르게 나사가 풀려 있으며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다. 그들은 심지어 스

스로 비보 같다는 걸 가까이 인정할 자세가 되어 있는 인물들처럼 보인다.

영화는 이런 네 명의 남자들이 남성 4중창 대회 참가를 준비하는 과정을 재미있게 펼쳐 보이는데 통상적인 성공이나 인물의 성숙을 다루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인생에서 이미 포기했고 더 나아질 가능성도 없다고 여기는 인물들이 특정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뭔가 어이가 없다는 느낌을

준다. 조롱하는 게 아니라 슬픈 것조차도 무감각해진 상태에서 힘껏 에너지를 발산하려는 모습들이 기묘한 감동을 준다.

주변 사람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가운데 이들 주인공들은 자신과 동료들 속에서 상호 인정 가능한 어떤 공통의 긍정적 표식을 확인하게 된다.

-김영진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정해은기자

전주국제영화제

2016 4.28~5.7

세계속에 알리는 '전주한지축제' 내일 개막

한국전통문화전당 · 한지지원센터서

제20회 2016년 전주한지문화축제가 5일부터 8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전주한지, 세계속으로'라는 가치를 걸고 한지산업진흥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지산업관 운영과 더불어 40여 개국의 외교사절단을 행사에 초청해 천년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한지산업의 궤도에 오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축제는 전통한지공예의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한 전국한지공예대전 수상작 전시 및 초대작가전, 전북대박물관과 함께 하는 고문서 등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부대행사로에는 전북현대축구단과 함께 하는 한지골대 골 넣기 대회와 한지축구공 소원불 경품공모 행사(한지타고 러시이론!)가 마련돼 있어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은다.

개막식은 5일 오후 6시 30분 한국전통문화전당 특설무대 하늘공원에서 시작되며 이후 7시부터는 한지패션디자인경진대회와 전주한지국제패션쇼가 열린다.

/정해은기자



전주한지 세계속으로' 포스터

문화예술인사업주 서면계약 의무화

예술인 복지법 시행, 위반시 과태료

문화예술 분야의 서면계약이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하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이다. 문체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사업주와 예술인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주와 예술인 모두 계약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아 계약서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면 재단을 통해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문체부가 개발·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두계약 관행으로 서면계약을 한 예술인은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로 인해 예술인들은 열정페이나 임금



예술인 복지법 홍보 포스터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컸다.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구두계약 관행이 해소되고, 서면계약 체결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성주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5월 4일>



▷쥐띠

48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니 투지나 투기는 피하라.
60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72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
84년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성사가 가능하다.



▷용띠

52년생: 타인과의 불화 시비, 구설이 예상되니 모임은 자제하고 언행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64년생: 매사 처리해야 하는 일은 일찍 움직여야 성사 된다.
76년생: 동기권으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기는 운.
88년생: 같은 화려한 듯 하나 실속이 없는 일에 휘말릴 수 있다.



▷원숭이띠

58년생: 평소 애만 있던 사람에게 실망할 일이 생기는 운.
68년생: 해야 할 일은 타인에게 미루지 말고 스스로 해결.
80년생: 다치거나 아플 수 있는 운이다. 무리하지 말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92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못하고 신난한 운이다.



▷소띠

49년생: 매사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때. 동서로 분주하니 움직이는 것에 비해 얻는 것은 부족하니 욕심을 버려라.
61년생: 이성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되나 구설이 따른다.
73년생: 의욕은 앞서나 결과의 빨리 얻지 못한다.
8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르는 운이다.



▷뱀띠

53년생: 금전운이 들어왔으니 작은 일은 성공한다.
65년생: 주변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하는 때.
77년생: 다른 사람과 감정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운, 똑같이 행동하면 같은 사람이 되니 넓고 크게 생각하라.
8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정신적 소모는 많다.



▷말띠

57년생: 평소 애만 알고 지냈던 사람에게 뜻밖의 도움을 받음.
69년생: 문서를 주고받음에 있어 좋은 운이다.
81년생: 타인과의 화합이 잘 되고 결과가 좋은 운.
93년생: 남자라면 여자의 도움을 여자라면, 연정자인 여성의 도움을 받으면 이루어진다.



▷호랑이띠

50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62년생: 다른 사람의 덕은 보기 어렵다. 기대하지 말고 혼자 해쳐나가기 한다.
74년생: 중요한 약속은 점심식사 시간을 활용할 것. 좋은 결과가 있다.
86년생: 타인으로 인해 신경 쓸 일이 생긴다.



▷말띠

54년생: 평소 애 배운 덕이 복으로 돌아오는 때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66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운이다.
78년생: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시작하라.
90년생: 원행은 살기는 것이 좋다. 뜻하지 않은 횡행으로 근심이 생긴다.



▷개띠

48년생: 운이 좋지 않으니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고 지중하며 내실을 다지는 것이 좋은 때.
60년생: 아랫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는 때다.
72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이다.
84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토끼띠

51년생: 타인과 화합하기에 좋은 운이다.
63년생: 근친으로 인해 근심 걱정이 생기는 운.
75년생: 처음에는 구설이나 후반에는 화합이니 먼저 베풀면 화답이 있을 것이다.
87년생: 고집은 금물. 한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실패는 없다.



▷양띠

55년생: 가벼운 말이 무거운 벌로 돌아오는 때. 자나 깨나 말조심해야 하는 운.
67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비단처럼 실망이 크다.
79년생: 배우는 사람에게는 큰 발전이 있는 운.
91년생: 처음은 좋으나 끝은 불길하니, 매사 깊이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돼지띠

47년생: 외부는 평탄한 듯하나 내적으로는 불안하니 큰일은 도모하지 말라.
59년생: 먼저 베풀면 후에 얻게 된다.
71년생: 뜻밖의 귀인을 만나게 되니 어려움이 있다.
83년생: 금전을 빌려주거나 투자는 좋지 않다.